



한국고분자학회
41대 회장 김 윤 희

존경하는 한국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1976년 창립되어 올해 4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학회는 역대 임원·회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4,500여 명 이상의 회원, 연 2,500여 편의 학술 발표가 이루어지는 국내 대표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학회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회원들이 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고분자학회의 성장은 관련 학문과 국가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회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시대, 개인이 지닌 가치가 존중되고 발휘되어야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고분자학회는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 급속하게 발전하는 연구 동향에 맞추어 학계와 산업계에 고분자 과학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회원 간의 협력과 지식 교류를 도모하며, 새로운 연구 및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을 강화하여 산학연이 상생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R&D 예산 감축 문제를 비롯하여 주변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연구재단 RB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 환경에서의 어려움, 문제점 관련하여 회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국가 정책, 연구 정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위원회 및 직위 추천 과정을 정립하여 참여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술교육위원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분위원회 및 지부가 활성화되어 회원님들 한분 한분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고 싶은 학회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님들의 연구 열정에 보답할 수 있도록 중견, 신진, 학생회원님들께 좀 더 많은 수상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국 화학산업을 대표하는 학회로 이끌어 주신 모든 회원님들과 학회 발전을 위해 많은 후원으로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회의 발전은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로 지속되기에 2024년에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는 열정적인 용기와 끈기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2024년 회원님들이 도전하시는 모든 일들에 청룡의 기운이 함께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

한국고분자학회 회장 김 윤 희